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여가선용 개선을 위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2012년 11월



구 미 시 의 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연수국가 :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2. 연수목적

- 생활스포츠를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한 구미시합기도협회 주관 교류행사 동행 연수 실시로 양국의 생활스포츠 실태를 비교하고 국내 생활스포츠 활성화 시책 연수
- 생활체육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내 체육관련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자료수집

3. 연수기간 : 2012. 10. 23 ~ 10. 31<7박9일>

4. 보 고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철 의원

5. 연 수 자 : 7명

- 구미시의회 의원 1명 (윤영철의원, 합기도협회 고문)
- 구미시합기도협회 6명 (이동희 회장 등)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목차

I. 서론

1. 연수의 배경	4
2. 연수내용	4
3. 연수일정	5

II. 본론

1. 방문지역 소개	6
2. 주요활동	9
3. 분야별 벤치마킹	12
○ 대학의 체육 수업 실시	12
○ 체육전문 연구대학의 운영	13
○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생활스포츠 육성	14

III. 결론	15
---------------	----

IV. 향후계획	15
----------------	----

I. 서론

1. 연수의 배경

- 주 5일제 근무도입에 따른 도시 근로자의 근로효율성 증대를 위한 체육활동 중심의 여가생활로 변화 요구
- 생활체육 참여율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체육활동 유인 요인을 찾아 시민 체력 향상과 스포츠 관련분야 발전 유도할 자료수집

2. 연수내용

- 연수기간 : 2012. 10. 23 ~ 10. 31<7박9일>
- 연 수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철 의원
- 연수내용
 - 생활체육 세미나 및 합기도 강습
 - 상호 생활체육 관련 간담회
 - 러시아합기도협회 초청 대회 참가
 - 러시아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 기타 생활체육 활동의 견문

3. 연수일정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10.23(화)	인천 -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2일차 10.24(수)	생활체육 강습세미나 - 생활속의 합기도 실기위주 - 합기도 기술분야 등	
3일차 10.25(목)	생활체육 강습세미나 - 대회운영 관리 및 기술분야 등	
4일차 10.26(금)	생활체육 강습세미나 -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방안 등 생활체육 간담회	
5일차 10.27(토)	러시아합기도협회 주최 대회참가 - 합기도 시범, 대회운영 등 참관	
6일차 10.28(일)	러시아합기도협회 주최 대회참가 - 합기도 시범과 시합 참가	
7일차 10.29(월)	러시아 생활체육(합기도)협회 방문 - 상호 교류 등 협의	
8일차 10.30(화)	생활체육 간담회 - 상트페테르부르크 - 모스크바 - 인천	
9일차 10.31(수)	인천	

II. 본론

1. 방문지역 소개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소개

러시아 연방의 북서부 끝에 위치하며,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약 640km, 그리고 북극권에서 남쪽으로 불과 7° 정도 떨어진 습지위에 지어진 계획도시로. 지난 2세기 동안 제정 러시아의 수도로서 러시아 역사의 중심무대를 이루었으며, 지금도 공업, 문화 도시 및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03년 표트르 대제가 네바 강의 하구에 세운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에서 비롯된 도시로 처음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했다가 1914년 페트로그라드로 개칭되었고, 1924년 레닌이 죽자 그의 이름을 기념하여 레닌그라드로 명명되었다.

그 후 1991년 11월 7일 구 소련연방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개혁의 와중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본래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되찾았다. 이 도시는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의 현장으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군의 극심한 포위공격을 끝까지 버텨낸 곳으로 유명하며, 건축적인 면에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의 하나로 명성이 높다.

○ 도시의 규모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시에 이어 규모와 인구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470만명, 면적은 1,439km²로 북위 59도 56분, 동경 30도 20분에 위치

○ 역사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는 핀란드 만 주위로 처음 러시아인이 정착한 것은 8~9세기부터이다. 이 지역은 원래 습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으므로 버려진 땅이었으며 15세기에 모스크바의 영토가 되었다. 1611년에 한번 스웨덴이 이 지역을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표트르 1세가 북방전쟁에서 다시 탈환하였다. 이곳의 수비를 목적으로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를 짓기 시작함으로써 도시건설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표트르 1세는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장대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 요새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짓게 되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에는 이 지역의 환경이 좋지 않았다. 연평균 기온이 4.2도에 일조량은 31일에 불과했다. 또한 매년 한번씩 홍수가 나곤 하였다. 또 원래 습지였던 이 지역에 도시를 바로 짓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석조 토대가 필요했는데, 이 때문에 도시를 지을 때 돌로 습지를 메울 필요가 있었다.

물론 습지를 메우는 데에는 많은 양의 돌이 필요했다. 따라서 표트르 대제는 돌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를 들어오는 모든 선박과 사람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칙령을 내렸다. 선박은 크기에 따라 30kg이상의 돌을 10~30개, 육로로 들어올 경우에는 15kg 이상의 돌을 세 개씩 가져와야 했고, 수많은 노예들이 습지를 메우는데 이용당하며 가혹한 자연과 고된 노동을 이기지 못 해 사망하였다. 이때 죽은 노예를 습지로 던져버렸기에 이 도시는 “뼈위에 세운 도시”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이 있다.

18세기 이후엔 러시아 최대의 무역항으로 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1851년엔 러시아 최초의 철도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간 부설되었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교통이 편리해 짐으로써 이 도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혁명의 중심이 되었다. 피의 일요일, 3월 혁명, 11월 혁명의 중심지였고 세계 2차대전 당시 에는 1941년 8월부터 29개월 동안 독일군에 포위당한 상태로 40만 명이 아사 당하면서까지 지켜낸 도시라고 하여 “영웅도시” 라고 불리기도 한다.

○ 주민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주민은 89.1%의 대부분이 러시아인이다. 2.1%가 유대인, 1.9%가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스인, 소수계로는 코카서스계 민족(대부분이 조지아인), 타타르인, 체르케스인, 우즈베크인, 베프스인, 핀란드인, 아제르바이잔인, 고려인, 중국인, 루마니아인이 있다.

○ 종교와 문화

러시아 정교회가 주 종교이며 기타 소수의 여러 종교가 있다 높은 수준의 문화가 발달하여 많은 예술품이 있으며 주로 이사와 성당 등 성당을 통한 예술품이 많다.

또한 예르미타시 미술관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에 손꼽힌다.

○ 행정구역

18개의 행정 구역이 존재한다.

2. 주요활동 및 방문지역

○ 생활체육 세미나

- 기 간 : 2012. 10. 24 ~ 10. 26
- 장 소 : 학교체육관 등 4개소
- 인 원 : 200여명(현지 동호인 등)



○ 합기도 시범 및 대회 참가

- 일 시 : 2012. 10. 27(토) ~ 10. 28(일)
- 장 소 : 합기도 강습 학교체육관
- 인 원 : 200여명
- 주요내용 : 합기도 시범 및 대회 참가



○ 생활체육 관련 간담회

- 일 시 : 2012. 10. 26(금) 및 10. 30(화)
- 장 소 : 러시아합기도 협회
- 주요내용
 - 러시아의 체육 실태
 - 양국 스포츠 교류
 - 기타 스포츠 관련 의견 교환 등



○ 상트페테르부르크 합기도 협회 방문

- 일 시 : 2012. 10. 29(월) 11:00
- 장 소 : 상트페테르부르크합기도협회사무실
- 주요내용 : 이완(상트페테르부르크 합기도협회회장) 및 협회 관계자와 상호 체육발전 관련 면담



○ 자체 간담회 및 토론

- 일 시 : 2012. 10. 29(월) 20:00
- 장 소 : 호텔숙소내
- 인 원 : 7명
- 토의사항
 - 러시아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 시 프로축구(제니트 상트)에 대한 시민의 열정
 - 정기 교류방법(지도자 파견 등) 교류 방법 협의
 -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에 대한 견문사항

3. 분야별 벤치마킹

○ 대학의 체육수업 실시

- 실태

러시아의 각 대학은 특이하게 체육수업이 일주일에 한 시간씩 편성되어 있다. 수업은 주로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에서 실기 위주로 수업을 실시하며,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활동을 통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 검토사항

우리나라의 대학처럼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체육수업을 통한 생활스포츠 활동이 심신을 단련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스포츠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찌하였거나 지역대학 만이라도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며 대학내 스포츠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는 정책이라 생각했다.

○ 체육전문 연구대학의 운영

- 실태

상트페트르브루크에는 레즈카프트 체육대학이 있다

체육 선진국 답게 체육교육과 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일반 스포츠 외에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 검토사항

우리나라에도 한국체육대학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화된

체육교육 분야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 있지만 스포츠 재활분야는 지역 대학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다



레즈카프트 체육대학의 전경

○ 시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스포츠 육성

● 실태

우리가 방문하기 전 10월 13일 상트페트르부르크에서는 우리 현지 교민 체육대회가 열렸다. 매년 10월경에 개최되며 교민의 체력증진과 상호교류가 목적이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현지인들의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유도, 태권도, 합기도 등의 무예 스포츠를 좋아할 뿐 아니라 동계스포츠, 체조 외에도 구기를 즐겨 현지 축구팀 (제니트 상트)를 응원하며 축구를 광적으로 즐기고 있다고 들었다.

● 검토사항

시간부족으로 축구경기 관람은 못했지만 그들의 일상 대화로 충분히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단지, 그들에게 체육시설이 부족한 아이러니가 있고 그래서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한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도 최근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스포츠단의 필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연수였다.

Ⅲ. 결론

- 러시아합기도협회와 구미시합기도협회간 교류를 통하여 러시아에 구미시의 위상을 알리고 생활체육을 통한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며,
- 민간이 주도하는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음으로써 민간외교관으로의 역할도 중요함을 체험하였음.
- 특히 체육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교류를 통하여 러시아에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의 우수성, 예절 등을 알림으로써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과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느낌.

Ⅳ. 향후계획

- 지속적 민간교류를 통한 산업과 문화 교류 증대
 - 이번 연수에서 느낀 점은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구미시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또한 우리 무술 태권도와 합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는 우리시 홍보로 이어져 구미 생산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 K팝과 민간교류 등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호응도가 높음을 느꼈으며 추후 우리의 국악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민간외교를 통한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도자 파견 등 체육분야 교류 확대

- 양 도시간 우수 지도자를 파견하여 기술과 인적교류 도모
- 지도자 파견에 따른 양국의 문화를 파급하는 효과 창출